

# 삼성, 일본과 폴리이미드 합작생산

## SMD, Ube Kosan과 합작법인 설립 ...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재로

삼성이 일본과 손잡고 폴리이미드(Polyimide) 생산에 나서 주목된다.

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일본 Ube Kosan과 폴리이미드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다고 5월27일 발표했다.

IT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주목받는 미래 핵심소재인 폴리이미드는 고온과 저온을 견디며 얇고 굴곡성이 뛰어나 첨단 고기능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.

주로 항공우주 분야 재료로 개발·사용됐고 산업용 기기와 전자 등 산업 전반으로 활용 폭이 커지고 있다.

합작법인은 고온에서도 팽창 변형이 없는 폴리이미드 소재를 개발해 양산하고,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유리기관 대신 휘어지는 성질을 지닌 폴리이미드 기관을 활용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차세대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.

합작법인의 지분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Ube Kosan이 50%씩 보유하게 된다.

조수인 사장은 “2007년 세계 최초로 AM-OLED(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) 양산에 성공한데 이어 일본기업과 합작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반 기술을 선점할 교두보를 확보했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5/27>